



發疹을 동반한 바이러스성 疾患

이 세 윤 / 학교건강관리소 의사

발진을 동반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은 많으나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질환인 홍역, 풍진 그리고 돌발진(突發疹)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1. 홍역(紅疫)

홍역은 홍역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며 대개 환자의 비인두(鼻咽頭)의 분비물이 비말(飛沫)로 전파된다. 전염성이 있는 시기는 발진이 나타나기 전 6~7일부터 발진 후 2~3일까지이다. 잠복기는 10~12일이다.

3~5일간의 발열, 불쾌감, 기침, 콧물, 결막염이 나타나는 전구기(前驅期)가 있고, 이 전구기말에 Koplik's spot가 구강점막에 나타난다. Koplik반점이 나타난 후 24~48시간내에 발진기가 오는데, 홍반성(紅斑性), 홍반구진성발진(紅斑丘疹性發疹)이 귀뒤에서 시작하여 얼굴, 몸통, 사지로 퍼지며 서로 융합하여 특징적인

얼룩얼룩한 모양을 이룬다. 3~5일 사이에 극에 달하고 점차 소실된다. 회복기에 들어가면 발진이 없어지면서 색소침착을 남기고 나중에는 조그마한 겨뿔질모양으로 껍질이 벗겨진다. 합병증은 중이염, 경부임파절염, 기관지폐렴이 흔히 발생하며 결핵을 앓고 있는 소아(小兒)는 결핵이 악화된다. 뇌염은 1,000명에 1명 정도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예방은 우수한 생백신이 나와 있으므로 능동면역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보통은 생후 15개월에 접종하지만 주위에 홍역이 돌고있을 때에는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일단 접종하고, 생후 15개월에 다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어린이가 홍역환자와 접촉하였을 때는 일찍 충분한 양의 감마-그로부린을 주사하면 홍역에 우선 걸리지 않게 수동면역을 시킬 수 있고, 이보다 늦게 또는 소량을 주사할 경우에는

홍역을 가볍게 앓게할 수 있다. 경하계라도 일단 경과하면 영구면역을 얻는다. 치료는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요법을 없고 안정, 충분한 수분공급, 기침과 고열에 대한 일반적인 대증요법을 시행하면 된다. 합병증을 우려하여 미리 항생제요법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 결핵반응이 양성이거나, 결핵환아에서는 2~3개월간 건강관리에 유의한다. 중이염, 경부임파절염, 기관지폐렴이 생겼을 때에는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한다.

2. 풍진(風疹)

풍진은 풍진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말할 때 튀어나오는 작은 비말(飛沫)로 전파된다. 잠복기는 2~3주다. 잠복기가 지나면 전구기(前驅期)가 오는데 아무 증세가 없는 수도 있고, 발열, 두통, 권태감등의 가벼운 전구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예다. 귀뒤, 목뒤, 후두부의 임파절이 증대되어 촉진되고 누르면 압통을 느낀다. 이 임파절의 증상은 발진이 나타나기 하루 전에 나타나 1주 또는 2주 지속될 수도 있다. 발진기에 들어가면 발진은 처음엔 얼굴에서 시작하여 몸통, 사지로 퍼지며 발진은 홍역처럼 불규칙하거나 융합되지 않고 심하지 않은 홍반이 나타난다. 발진은 첫째날에는 홍역과 비슷하고, 둘째날에는 성홍열(猩紅熱)과 비슷하고 제삼일에는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합병증이 거의 없이 자연치유되는 질환이다. 임신 첫 3개월 이내에 풍진의 감염을 받으면 신생아에 선천성 기형이 생길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사춘기 이전의 여아(女兒)는 본병(本病)에

●●임신 첫 3개월 이내에 풍진의 감염을 받으면 신생아에 선천성 기형이 생길 위험이 있다.●●

접촉할 기회를 피하지 않도록 한다. 어떤 학자는 오히려 계획적 접촉을 권하기도 한다. 13~15세 여아에 본병의 항체가 없으면 능동면역을 시킨다. 풍진에 걸린 적이 없는 임신 4개월 이내의 부인 접촉자(婦人接觸者)에게는 면역혈청, 감마-그로부린등의 사용이 고려되며 최소한 20cc를 근육에 주사한다.

3. 돌발진(突發疹)

돌발진은 특유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전염은 비말감염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 6개월에서 3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본병(本病)에 걸린다. 잠복기는 10~14일이다. 전구기에 이렇다할 원인없이 갑자기 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체온이 39~40℃에 이른다. 초기에 열성경련을 일으키는 아이가 있다. 이때 인두점막이 약간 발적되거나 콧물이 나는 수가 있으나 특별한 증세는 없다. 고열이 3~4일간 있다가 갑자기 열이 떨어지면서 발진이 나는 발진기에 들어간다. 발진은 반점상(斑點狀) 또는 반점구진상(斑點丘疹狀)이며 풍진 발진과 비슷하다. 주로 몸통, 목, 귀뒤에 나타나며 얼굴이나 다리에는 적다. 발진은 빨리 쇠퇴하며 24시간 이상 가는 일이 드물다. 합병증은 열성경련 이외에 별로 없다. 치료는 고열에 대해 대증요법을 시행하고, 예후는 양호하다. 卍